



# 에너지와 環境에 對한 國際協力 협의

## 改良型 原子爐 開發 열의보여

“

국내의 원자력계 인사 500여명이 함께한 이번 합동연차대회는 크린에너지로써의 중요성과 차세대 전력원으로써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그 열의가 한층 더 했다.

”



한국원자력산업회와 원자력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第6回 韓國原産/原子力學會 年次大會가 지난 4月 15일부터 17日까지 3日間 세라톤워커펀호텔에서 개막되었다.

“깨끗한 환경과 보다 안전한 원자력발전”을 기조테마로 한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소련, 중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 11개국에서 내한한 100여명의 외국전문가와 400여명의 국내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6개 분야로 나뉘어 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보다 안전한 改良型 原子爐의 개발 이용에 관심을 보였다.

제1분과는 개량형 원자로기술, 제2분과는 발전

성능 향상과 원자로 운전, 제3분과는 원자력의 안전성, 제4분과는 핵연료주기, 제5분과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 제6분과는 원자력 첨단기술의 응용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15일의 등록접수 및 리셉션에 이은 16일의 개회식에서 安秉華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냉철한 자성과 굳은 의지로 다가올 2000년대를 원자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국민 합의와 화석연료로 인한 공해문제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 지금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좋은 때라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의 밝은 미래를 제시했다.

영국원자력청장 B.L. Eyre씨는 “영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과 장래계획”이란 기조강연을 통해 저준위, 중중위, 고준위폐기물 처리·처분에 따른 방안과 지표에서 500m 이상 지하에 있는 저장소에 중중위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술은 이제 확립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해야 할 주요한 일은 부지선정 및 부지특성을 살리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Jan Runermark 스웨덴 ABB Atom사장은 스웨덴 정부가 현재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스웨덴이 원자력발전소를 폐지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스웨덴 국민들도 원자력발전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련의 원자력학회장 빅토 V. 오롤로프바사는 “소련의 원자력발전 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현재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VVER 및

RBMK원자력발전소의 총설비용량은 38,000MW로 전체 발전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86년의 체르노빌사고로 인해 소련에서의 원전사업이 큰 장애를 받고 있으나 이를 교훈으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발전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10년후면 액체鉛냉각 고속증식로가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최측은 연차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원자력산업에 대한 기술전시회를 가졌는데 한전을 비롯한 CE, 백텔사 등 국내외의 원자력 관련업체의 참여가 있었다.

또한 소련과의 민간차원에서의 원자력 협력각서 조인식이 한국원산, 원자력학회 그리고 소련 원자력학회간에 이루어져 이번 제6회 한국원산/원자력학회 연차대회의 뜻을 한층 더 빛냈다.

